

実用化」는 처음있는 일이다.

이 플랜트에서는 每時間 1,700톤의 바닷물을 취수하여 여과장치를 통과시킨 후 흡수제로 티탄酸등을 사용해서 바닷물속에 극히 소량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을 선택적으로 흡착하며, 이것을 중탄산나트륨등으로서

脱着시키는 공정을 되풀이 함으로서 우라늄 농도를 높여가는 방식이다.

이번에 기공된 플랜트는 83년까지 완성되어 84년부터 86년까지 3년간 시험운전을 행할 계획이다.



西独 DWK社, 高레벨 廢棄物의

글라스(硝子)固化 実証 pilot plant 着工 独自技術 “파메라” 採擇



서독의 核燃料再処理会社(DWK)는 8月初 벨기에의 물에 있는 유로케믹工場 사이트에 高레벨放射性廢棄物 글라스固化 pilot plant 건설을 착공하였다. 이 pilot plant 는 유로케믹社의 再處理工場이 運轉中에 排出하는 방사성폐기물 65m³를 처리하게 된다. 즉, 몇년후에는 서독이 獨自의으로 開發한 글라스固化法이 pilot plant 규모로 처음으로 実証運轉되는 것이다.

高레벨 방사성폐기물 글라스固化pilot plant의 cold test는 1984년말 예정이고, 1년후에 hot test를 행한 후 2년동안 글라스固화를 行할것이다. 이 pilot plant는 그후 벨기에政府가 인수토록 되어있는데 再處理工場의 장애에 대해서는 이번 가을 議會에서 심의한 후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이 plant의 총공사비는 1억 1천 5백만 마르크이며, 이중 80%를 서독정부가 國產글라스固化技術 開發實驗費로 支出한다.

글라스固化技術은 칼스루에 原子力研究센

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파메라”라고 命名하였다. 프랑스 AVM技術과 비교하여 ① 煨燒 (calcine, calcining)와 글라스화를 同時에 行하는 것과, ② 인코로이 벨터法이 아닌 세라믹 벨터法을 사용하는 두가지점이 다르다.

한편, DWK의 子会社 GWK는, 1979년에 프랑스의 原子力庁, 同 子会社 SGN과의 사이에 AVM技術의 지식과 engineering 양도 契約를 체결하고 칼스루에의 재처리시설(처리능력 25톤)에 pilot plant “호바”를 건설중이다.

이와같은 양면작전은 再處理 分野 에서도 볼수 있다. 서독의 전력회사는 고아레벤再處理·貯藏 센터 計劃이 凍結된 상태이므로 DWK는 최근 미국에 대해 반월再處理 工場에 參加할 것을 申請하였다. 서독측에서는, 서독의 참가로 반월計劃이 再開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